

가톨릭중앙의료원  
**윤리헌장**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 우리는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임없이 기도와 봉사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의 가족도 병을 치유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닌 역량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아낌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피도록 교육한다.
- 우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와 예방 및 재활에 힘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가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이끈다. 또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다.
- 우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이 환자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과 윤리헌장

지난 2012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교회의 교도권과 윤리적 전통에 근거하여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장직을 맡고 계셨던 이동의 신부님께서서는 발간사를 통해 「윤리헌장」 제정의 의의를 “1986년에 제정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의료 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집대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5년에 이르러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책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가까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설립 정신과 사명을 천명하는 문헌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사용되어 왔던 “이념”이란 용어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결정에 따라, “영성”으로 바뀌게 되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그 설립정신과 사명의 요체를 “이념”이라는 세속적인 용어의 틀에 담아 선언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그 같은 문제가 개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리헌장」개정판은 이 같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부분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의 내용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구성원 모두가 이 「윤리헌장」을 통해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자 맡은 바 소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25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신부

## 윤리헌장을 제정하면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개원 76주년을 맞아 오랜 준비 끝에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본원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천명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게 된 것은 여러 모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리헌장」은 1986년에 제정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을 의료 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이 제정된 지도 어느덧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이룩해 온 눈부신 성과들은 모두 이 영성을 실천하기 위한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CMC 가족들의 열정과 의지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영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성찰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낮은 감은 있으나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윤리헌장」 제정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성의 실천은 반드시 윤리적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윤리를 폭넓게 실천하는 것만큼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은 첨단 의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사실이며, 특히 인간 생명과 관련된 의료윤리 및 생명윤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윤리헌장」 제정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료·연구·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며, 가톨릭 의료 공동체로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조직 문화 창조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원 76주년을 맞아 선포하는 「윤리헌장」은 모두 4부 14개 장 46개 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국 가톨릭교회 의료 활동의 역사와 기원을 되돌아보고, 그 빛나는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명과 정신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가톨릭교회가 지난 2천 년 동안 펼쳐 온 의료 선교의 원천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분의 치유 활동에 있음을 교회의 교도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제3부에서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 수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존중’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우리의 영성과 핵심 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을 진료, 교육, 연구, 원목, 경영 등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모든 지침 역시 가톨릭교회의 교도권과 윤리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의 「윤리헌장」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행동 원리와 지침, 판단 규범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윤리헌장」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모든 구성원이 기관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함으로써, 죽음의 문화가 횡행하는 우리 시대에 복음의 빛을 환히 밝혀 주는 “생명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5월 3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

이동익



개정판 서론 ... 05

발간사 ... 07

## 제1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명

1.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정체성 ... 16

### 제1장 · 한국 가톨릭 의료 활동의 역사와 기원

2. 박해 시대의 의료 활동 ... 17

3. 어린이 구호 사업과 시약소 ... 18

4. 의료 활동의 재개 ... 19

5. 수도회의 진출 ... 20

### 제2장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설립과 발전

6.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 ... 21

7. 성모병원 설립 ... 22

8. 자선 의료 ... 22

9. 인재 양성 ... 23

10.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 ... 24

### 제3장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11. 제 정 ... 26

12. 기본 정신 ... 27

13. 전통과 계승 ... 28

## 제2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14. 예수 그리스도: 육신과 영혼의 의사 ... 34

### 제1장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15.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 36

16.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 ... 37

17. 하느님 나라의 표징 ... 39

### 제2장 ·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18. 함께 아파하시다 ... 41

19. 어루만지시다 ... 42

20. 구원하시다 ... 44

### 제3장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1. 가르치시고 파견하시다 ... 46

22. 의료 선교와 복음화 ... 48



### 제3부 가톨릭 의료 활동의 기본 원칙

23. 의료의 목적은 생명에 대한 봉사이다 ... 54

#### 제1장 · 인간의 존엄성

24.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 55

25.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이다 ... 56

26. 인간은 세상 만물의 중심이요 목적이다 ... 57

27.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누린다 ... 58

#### 제2장 · 인간 생명의 존중

28.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 60

29. 생명은 그 시작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 ... 61

30. 모든 인간은 인간 존엄성에 합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 62

#### 제3장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

31.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은 교회의 전통이다 ... 65

3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한다 ... 66

### 제4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의 적용과 실천

33.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과 핵심 가치 ... 72

#### 제1장 · 진료

34. 병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 ... 73

35. 출생 전 생명의 존중 ... 75

36. 임종자의 존엄성 보호 ... 77

#### 제2장 · 교육

37.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 80

38. 가톨릭 의료인 양성 ... 82

#### 제3장 · 연구

39. 창의적 연구와 전문직 윤리 ... 85

40.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87

4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89

#### 제4장 · 원 목

42. 병자 중심의 사목: 본질적이고 고유한 임무 ... 91

43. 교직원을 위한 사목 ... 93

#### 제5장 · 경 영

44. 의료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 ... 96

45. 공정한 인적 자원 정책 ... 98

46. 사회적 책임 ... 100

참고 문헌 ... 103



## 제1부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명

제1장 · 한국 가톨릭 의료 활동의 역사와 기원

제2장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설립과 발전

제3장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정체성

1.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 보건과 의료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을 영위하는”<sup>1)</sup> 의료기관으로서, 그 고유한 정체성의 뿌리는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 곧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루카 9,2)는 사명에 있다.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활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만나시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또한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범을 본받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은 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본질적 사명 중 하나이다. 이 사명 안에서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의료기관은 동일한 신앙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한 구원 사업을 항구히 계승하는 일이다. 초세기 이래 교회는 복음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병자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을 언제나 복음의 선포와 병행시켜 왔다.<sup>2)</sup>

## 제1장 · 한국 가톨릭 의료 활동의 역사와 기원

### 박해 시대의 의료 활동

2. 한국 가톨릭교회의 의료 사업이 교회 당국의 공식 사목 활동으로서 이 땅에 첫 걸음을 내딛은 때는 조선 후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던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보다 이른 박해 시대 초기에도 중인 계급 신자 의원들이 전통적인 한방 의술로써 의료 활동을 펼쳤다는 기록은 있으나, 엄밀히 말해 그것은 교회 당국의 공식 사목 활동은 아니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창설 이후 반세기 가까이 독립된 개별 교회로서가 아니라 조선 포교지로서 중국 북경교구장의 지도 아래 놓여 있었다. 한국 교회가 개별 교회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이 땅을 조선교구로 설정한 이후의 일이며, 신설 교구의 사목권을 위임받은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은밀히 이 땅에 들어와 사목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5년 늦은 1836년에 이르러서였다.<sup>3)</sup>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의 공식 의료 활동은 그로부터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857년경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어린이 구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 시약소



(施藥所)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sup>4)</sup>

## 어린이 구호 사업과 시약소

3. 1852년 조선에 잠입한 메스트르(Maistre, 李) 신부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교 활동에 힘쓰던 중 극심한 흉년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버려지거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회로서는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박해령이 여전히 발효 중에 있으므로” 필요한 시설을 공공연하게 설치할 수 없었다. 1854년 메스트르 신부는 고심 끝에 기아(棄兒)나 고아(孤兒)들을 “신자 가정에 나누어 주어” 비밀리에 양육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한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어린이 구호 단체 <성영회(Sancta Infantia)>에 편지를 보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다.<sup>5)</sup>

성영회 본부의 지원을 받은 어린이 구호 사업은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Berneux, 長敬一) 주교의 사목 서한<sup>6)</sup>을 통하여 전국의 신자들에게 알려졌고, 1859년에는 43명의 고아들을 양육할 정도로 성장하였다.<sup>7)</sup> 이 사업은 그 목적이 어린 생명을 돌보는 일이었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의료 활동을 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약소의 설치는 이 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sup>8)</sup> 비록 지

극히 한정된 소수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였으나 1857년에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약소가 박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펼친 최초의 의료 활동이었으며, 또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한 “서양 시료사업(施療事業)”이었다.<sup>9)</sup>

## 의료 활동의 재개

4.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시작한 어린이 구호 사업과 의료 활동은 1866년부터 재개된 박해로 말미암아 10여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미 열강과의 통상조약으로 종교 자유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정국이 조성되자,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Blanc, 白圭三) 주교는 중단되었던 어린이 구호 사업을 재개하였다. 1885년 봄에는 서울과 경상도에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그해 여름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동냥으로 연명하거나 외교인 집에 살면서 죽을 위험에 있어도 성사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노인들”을 위하여 서울에 양로원을 새롭게 개설하였다.<sup>10)</sup> 이듬해에는 양로원에 시약소를 부설하여 의료 활동을 재개하고 노인들뿐 아니라 “젊을지라도 중한 환자이면” 그들도 함께 입원시켜 치료해 주었다.<sup>11)</sup>



## 수도회의 진출

5. 20여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한국 교회의 자선·사회사업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한불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토지 구입과 기타 시설을 위한 건축의 착수가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한국 교회에 부족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할 외국 수도회의 진출도 가능해졌다. 1888년 프랑스의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가 수도회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독일의 성베네딕도회 오틀리엔 연합회(1909), 미국의 메리놀외방전교회(1923)와 메리놀수녀회(1924), 독일의 포교 성 베네딕도수녀회(1925), 스위스의 올리베타노수녀회(1931) 등이 잇달아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교육, 출판, 자선·사회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덕분에 그전까지 고아원과 양로원의 부설 시약소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의료 활동도 점차 그 대상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일반 주민들로까지 확장해 나가며 곳곳에 무료 진료소와 의원을 개소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다.<sup>12)</sup> 그 결과 1931년에 한국 교회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의료 시설은 경성교구 2개소(서울, 제물포), 평양교구 3개소(의주, 영유, 비현), 원산교구 2개소(원산, 덕원), 연길교구 4개소 등 모두 11개소에 이르렀다.<sup>13)</sup>

## 제2장 ·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설립과 발전

###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

6. 수도회들의 진출을 계기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193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의 의료 활동은 덕원과 원산 등의 몇몇 의원급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처에 설립된 시약소 중심의 간이진료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과 재정의 부족이었다. 이에 경성교구청년연합회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그 기념사업으로서 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1931년 6월 14일 기념병원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병원 기성회 취지서」를 발표하여 전국의 신자들에게 병원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였다.<sup>14)</sup> 이 취지서에서 밝힌 병원 설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교회의 영혼 구제 사업과 더불어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도 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본질적 사명 중 하나이므로 자선 의료와 선교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들거나 임종을 앞둔 신자들을 신앙으로 돌볼 어엿한 교회 의료기관을 세워 신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지는 것이었다.<sup>15)</sup>



## 성모병원 설립

7. 기념병원 설립이 결정되자 신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일제 식민지 하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설립 기금이 답지하였고, 신자들의 기금 모금은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의 정식 병원이 탄생할 때까지 5년간 꾸준히 계속되었다. 제9대 경성교구장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는 이러한 신자들의 염원을 모아 처음에는 “주교관 구역 안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sup>16)</sup> 때마침 이웃해 있던 무라가미(村上)병원의 매매 소식을 듣고 계획을 바꿔 1935년 3월에 이 병원을 매입하였다. 새 병원의 공식 명칭은 1935년 7월 3일, 일찍부터 초대 병원장으로 내정된 박병래 선생의 제안에 따라 “성모병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년여의 개축과 보수 공사를 거쳐 마침내 완공된 성모병원은 1936년 5월 1일 라리보 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을 가졌고, 5월 11일에는 성대한 개원식을 거행하였다.<sup>17)</sup>

## 자선 의료

8. 개원과 동시에 성모병원은 설립 정신에 따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던 무료진료소를 병원에 영입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박해 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선 의료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24개의 병실과 경당(敬堂), 진찰실, 약국 등을 두루 갖춘 성모병원은 또한 완전한 설비와 저렴한 진료비, 신용 있는 진료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성 시내 우수한 병원 중의 하나”로 발돋움하였다. 외래환자는 하루에 100명을 훨씬 넘었고, 입원실도 항상 여유가 없을 정도였다. 성모병원의 발전과 함께 무료진료소를 찾는 환자도 늘어나 이곳에서도 역시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sup>18)</sup> 이후 성모병원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 의료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명칭과 형태를 조금씩 달리해 가며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1954년 성요셉자선병원 개설, 1961년 나병진료소(1962년 만성병 연구소로 개칭)<sup>19)</sup> 개설, 1964년 무료진료소 신설, 1974년 자선진료소 신축 개원 등은 그 대표적인 활동들이다.<sup>20)</sup>

## 인재 양성

9.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 혼란기를 맞았던 성모병원은 전후 의료진을 정비하고 전재민(戰災民) 무료 진료에 앞장서며 치유 안정을 되찾았다. 제10대 서울교구장 노기남 주교는 가톨릭 의료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4월 성신대학



(1959. 2. 가톨릭대학으로 개칭) 안에 의학부가 증설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성요셉간호고등기술학교(1963. 12. 의학부 간호학과로 승격)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 의료사업은 병원과 의사, 간호사라는 세 요소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학부 창설 이듬해인 1955년 10월에는 의학부를 중심으로 가톨릭 의료기관들의 교육·연구·진료 등을 체계화하고자 부속병원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성모병원을 제1부속병원으로, 성요셉자선병원을 제2부속병원으로 지정하였다.<sup>21)</sup>

###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

10. 의학부 설립 이후 성모병원은 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그때까지 미흡하였던 의료진을 크게 보완하여 1958년 3월 마침내 종합병원으로 승격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모병원을 대학병원다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성모병원은 1957년 12월에 신축 건물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4년 만인 1961년 1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성모병원의 신축은 또한 처음부터 이 병원을 장차 <가톨릭 의료사업 센터>로 육성하려는 커다란 의도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의학부의 발전과 함께 1962년 초까지 가톨릭대학 의학부에 부속된 병원은 모두 7개에 달하였으며, 이 같은 부속병원의 확대는 조직적

차원에서 이를 총괄할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가톨릭계 병원들의 발전도 가톨릭 의료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의료 활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안팎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1962년 2월 1일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 보건과 의료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천주교 각 의료 보건 사업에 협조”<sup>22)</sup> 한다는 가톨릭 의료 사업 본연의 목적을 표방하며 공식 출범하였다.<sup>23)</sup>



### 제3장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 제 정

11.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986년 11월 24일에 기관의 이념(2015.3.23 '이념'을 '영성'으로 명칭 변경)을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의료원 체제가 출범한 지 거의 4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이를 명확하게 성문화한 것이다. 그 과정은 세속의 변화와 도전에 맞서 가톨릭 정신에 따라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또 다른 역사이며 증언이다. 이 시기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교회 의료기관으로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재확인하고 그것을 이념으로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당시 이념 제정의 중요한 계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반생명적인 인공 피임 방법의 보급과 낙태 그리고 인공적인 임신 보조 기술의 의료화에 대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윤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사회 변천과 의료의 사회화 추세로 말미암아 자선 의료로 특징되는 교회 의료의 전통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가톨릭 의료

기관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스스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 같은 고민과 노력은 마침내 교회 의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념 제정은 바로 그 결실이었다.<sup>24)</sup>

#### 기본 정신

12.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 곧 영성의 뿌리는 복음에 있으며, 그 기본 정신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는 데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sup>25)</sup>

복음에서 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데 온 생애를 바치셨다. 그분은 언제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머무시며, 사랑과 연민으로 다가가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셨고(마태 8,2~4), 중풍 병자를 낮게 하셨으며(마르 2,1~12), 소경과 병어리들을 고쳐 주셨다(마태 9,27~34).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고(마태 9,18~26), 과부의



아들과(루카 7,11~17) 라자로를(요한 11,38~44) 살려 주셨다. 그분은 질병보다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그 사람 자체를 붙잡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가 사랑의 열매임을 보여 주셨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알려 주셨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활동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의료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의료는 이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 전통과 계승

**13.**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초세기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직무를 끊임없이 새롭게 체현해 온 가톨릭 의료 사업의 보편적 정신과 전통을 공유한다. 동시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100여 년에 걸쳐 지속된 박해 속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목숨을 걸고 펼쳐 온 초창기 의료 활동의 정신과 전통을 또한 계승한다. 일찍이 성모병원은 박해 시대부터 근 80년간 이어져 온 한국 가톨릭 의료 사업의 빛나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유산을 전수(傳受)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사명을 자임해 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의 영성은 이 유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굳건히 보전(保全)해 나가야 할 복음적 사명의 재정립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의료를 통하여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모든 의료 행위는 생명에 대한 봉사이자,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완전한 투신이다.<sup>26)</sup>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복음이 존재하는 한 그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영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 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sup>27)</sup>



註) \_\_\_\_\_

- 1)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규정』, 제1조(목적).
- 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인간의 고통』(1985.2.11), 1항.
- 3) 참조: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342~4347면.
- 4) 참조: 가톨릭중앙의료원50년사편찬위원회 편,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가톨릭출판사, 1988, 27~34면.
- 5) 참조: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안응렬·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1980, 209~210면.
- 6) 참조: 장주교윤시제우서(長主教諭示諸友書)(1857.10.2).
- 7) 참조: 『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4736~4737면.
- 8) 참조: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296면.
- 9) 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32~34면.
- 10) 참조: 천주교명동교회 편, 『서울교구연보』, I 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40~41면.
- 11) 참조: 같은 책, 51면.
- 12) 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35~47면.
- 13) 참조: 박태봉, 『한국 천주교회와 의료 사업의 전개 과정』, 『한국 교회사 논문집』, II 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861면; 『천주교회보』(1931.10.1), 4면.
- 14) 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51~55면.
- 15) 참조: 경성교구청년연합회, 『조선 성교 백주년 기념: 병원 기성회 취지서』, 『별』 제 49호(1931.7.10), 1면.
- 16) 참조: 『서울교구연보』, II 권, 284면.
- 17) 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55~60면.
- 18) 참조: 같은 책, 58. 60~62면.
- 19) 참조: 같은 책, 396~400, 511면.
- 20) 참조: 같은 책, 164~168, 492~498면.

- 21) 참조: 같은 책, 73~91면.
- 22) 『가톨릭중앙의료원 규정』, 제1조(목적).
- 23) 참조: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91~97, 155~156면.
- 24) 참조: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 『영성연구자료집(1): CMC 영성 제정의 배경』, 2009.
- 25)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1986.11.24 제정, 2015.3.23 개정), 전문(前文).
- 26) 참조: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1995), 5항.
- 27)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전문(前文).





## 제2부

###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제1장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제2장 ·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제3장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예수 그리스도: 육신과 영혼의 의사

14. 질병과 고통은 인간을 가장 괴롭혀 온 문제들 중 하나이다.<sup>1)</sup> 사람들은 오랫동안 질병과 고통을 죄의 결과로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요 (창세 3,16~19 참조),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진노를 표시하는 징벌(탈출 9,1~12; 신명 28,21~22,27~29,35 참조)이라고 여겨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치유를 청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시편 38,2~6; 39,9~12; 107,17 참조). 치유는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 포함하는 영적 치유와 구원을 뜻하며, 치유를 통하여 인간은 다시 그 본래의 온전성을 회복한다. 치유는 하느님께서 고통 받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을 사랑으로 굽어 살피셨음을 말해 주는 표지이다.<sup>2)</sup>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는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네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치유 행위는 모두 72회에 달하며, 그 분량은 복음서 전체의 약 1/5에 해당한다. 그분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치유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병자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진정한 치유였다.<sup>3)</sup> 그분의 치유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분의 크나큰 자비를 명확히 보여주며, 하느

님 나라에는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없고, 그분의 사명은 처음부터 이러한 악들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것임을 의미한다.”<sup>4)</sup>



## 제1장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 생명을 받으신 분이시며(요한 5,26 참조), 당신 친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그 선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sup>5)</sup> 그분께서는 우리의 허약함과 병고를 짊어지러 오셨고(마태 8,17 참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으며, 또 많은 사람 곧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당신 생명을 내어 주러 오셨다(마르 10,45 참조).<sup>6)</sup> 그분께서는 “육신과 영혼의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셨다.<sup>7)</sup> 실제로 그분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당신 사명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당신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

16.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건설에 있었다. 그분께서는 군중들에게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루카 4,43) 하고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은 특별히 고통 속에서 도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분께서는 배척받고 멸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셨고(루카 6,20 참조),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뭇임을 알려 주셨다(마태 18,3~4; 23,12 참조).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그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되셨다.<sup>8)</sup>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깝게 지내셨으며,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기에 그들을 진실로 복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스런 처소에서 돌이켜 하느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을 위한 자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식탁에 마련되어 있음을 확신시키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러운 이들을 만지시고 또 그들이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하느님과 가까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친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으며, 한 과부 어머니에게 그의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주셨으며, 어린이들을 환영하셨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연민이 이처럼 가깝게 느껴진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병자, 절름발이, 맹인, 귀머거리와 병어리들이 모두 그분과 접촉하여 용서와 치유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부, 세리, 열혈당원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들과 또한 여성들과 같은 사회 주변부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협력자들로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모든 것을 감싸 주시는 사랑으로 결합된 새로운 가족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매일 매일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화들을 이용하시면서 소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sup>9)</sup>

## 하느님 나라의 표징

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더불어,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사도 2,22)을 행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셨다.<sup>10)</sup> 특히 그분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표징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루카 11,20; 마태 12,28 참조).<sup>11)</sup> 죄의 결과로 인식되던 질병의 굴레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전인적(全人的)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 그들은 “모든 인간의 요구와 고통에 민감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당신이 받은 부탁은 기꺼이 들어주시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아버지”<sup>12)</sup> 하느님을 체험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마르 2,12; 마태 15,31 참조).

“하느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방과 구원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 두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사명의 특징은 치유와 용서의 두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치유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분의 크나큰 자비를 명확히 보여 주며, 하느님 나라에는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없고, 그분의 사명은 처음부터 이러한 악들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치유는 정신



적 구원, 곧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치유 행위를 수행하시며 사람들을 믿음과 회개와 용서에 대한 바람으로 초대하십니다(루카 5,24 참조). 일단 믿음이 있으면, 치유는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여 구원으로 이끕니다(루카 18,42~43 참조). 가장 큰 악이고 하느님에 대한 반역과 죄의 상징인 마귀 들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다.'(마태 12,28)는 표지입니다."<sup>13)</sup>

## 제2장 ·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 함께 아파하시다

**18.**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시작은 사랑이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육신의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고통 받는 이들을 모두 가엾게 여기셨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사도 10,38)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을 치유하셨다.<sup>14)</sup>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마태 9,35~36. 마태 14,14 참조)

그분께서는 병들어 아픈 몸을 이끌고 당신을 따라나서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셨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진실로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셨다. 그분께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단 한 사람의 고통도 외면하



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자 “가없는 마음이 드셔서” 그를 고쳐 주셨고 (마르 1,40~45), 눈먼 두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자 “가없는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며(마태 20,29~34 참조),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루카 7,11~17 참조). 그분께서는 병자들의 아픈 상처를 마음으로 감싸 주셨고, 소외감과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위로하셨다. 그분께서는 율법학자들의 비난과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마르 3,1~6; 루카 13,10~17; 14,1~6; 요한 5,1~18; 9,1~41 참조).

## 어루만지시다

**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호소를 마다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인격을 또한 존중하셨다. 이스라엘에서 병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온갖 질병의 형태로 자기 몸에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중한 병일수록 그 죄도 크다고 여겨져 더 큰 냉대와 멸시를 받았다.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났고,<sup>15)</sup> 하혈병을 앓는 여인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

지되었다.<sup>16)</sup> 그들은 남들처럼 종교 의식이나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치유를 갈망하였고,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모두 그분께 데리고 왔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루카 4,40~41)

그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셨다. 그분께서는 병자들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더욱 많은 이들이 그분께 “밀려들었다”(마르 3,10 참조).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감히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하던 병자들은 그분께서 친히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어” 손을 얹어 주셨다(루카 13,12~13 참조). 때로는 그들을 군중과 떨어진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마음 속 깊은 상처들까지 어루만져 주셨다(마르 7,33; 8,23 참조). 그분께서는 심지어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나병 환자에게도 서슴없이 “손을 내미셨다”(마태 8,1~3 참조). 사람들이 경탄해 마지않던 그분의 치유는 이러한 인격적 접촉 뒤에 일어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셨고, 그분을 찾



아온 이들은 저마다 그분께 깊은 신뢰를 드렸다(마태 9,20~22 참조). 그분께서는 각 사람 하나하나를 환대하심으로써 당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을 환대하셨다.

### 구원하시다

**20.**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전체는 그분께서 당신 주위의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 특히 병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크나큰 관심과 사랑으로 특징된다.<sup>17)</sup> 그분께서는 스스로없이 병자들과 가까이 지내시며 그들을 치유하셨고, 모든 병고가 개인적인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당시의 통념을 단호히 거부하셨다(요한 9,1~3 참조). 이제 그분께서는 병자들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러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 선언하심으로써<sup>18)</sup> 그들 모두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병자들은 더 이상 벌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다.

“그때에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 놓으려고 하였다. ……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

나 자기가 누워 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루카 5,17~26)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들의 몸은 깨끗해졌고(마르 1,41 참조), 건강해졌으며(마태 12,13 참조),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마태 9,22; 15,31 참조). 그들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다시 온전해졌고,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식에서 해방되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느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살던 공동체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심으로써 “인간을 그의 가장 큰 병에서 해방시켜 하느님의 생명을 향하여 다시 서게”<sup>19)</sup> 하셨다.



### 제3장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가르치시고 파견하시다

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적과 인격으로 당신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알려 주셨고,<sup>20)</sup> 무엇보다 그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sup>21)</sup> 그분께서는 모든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을 ‘이웃 사랑’이라 가르치시고(루카 10,25~28),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를 들어 우리 모두가 고통 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 죄인들, 병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루카 10,30~35)

그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고통을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멈추어 서서 도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요,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다.<sup>22)</sup> 그분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하고 이르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권고하신다. 그것이 그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본질적 사명이며, 교회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루카 4,18)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루카 19,10)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셨듯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언제 어디서든 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체현하도록 요청받고 있다.<sup>23)</sup>





## 의료 선교와 복음화

**22.** 교회는 창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 곧 성령의 인도로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이다.”<sup>24)</sup>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으며, 특히 그분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sup>25)</sup>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실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표징으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신 것처럼(마태 9,35~36; 사도 10,38 참조), 그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마태 10,7~8)

이 사명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진다.<sup>26)</sup> 교회는 영혼과 육신의 치유자이신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일찍부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체현하는 일에 힘쓰며, 병자들과 고통 받는 이들에게 그분의 치유하시는 사랑

과 위로를 밝혀 주고 전하여 왔다.<sup>27)</sup> 수많은 수도회들이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 왔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세계의 수많은 가톨릭 병원들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sup>28)</sup>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 병자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드높이는 일, 병자들의 구원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은 세상 끝까지 교회가 선포하여야 할 복음의 핵심이다.



註) \_\_\_\_\_

- 1) 참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00항.
- 2) 참조: 레옹-뒤푸르 외, 『성서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323~326면.
- 3) 참조: 『한국가톨릭대사전』, 제11권, 2005, 8333~8336면.
- 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1990.12.7), 14항.
- 5)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1995.3.25), 29항.
- 6)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1965.12.7), 3항.
- 7)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32항.
- 8)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13~14항.
- 9)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1999.11.6), 11항.
- 10)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547항.
- 1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1964.11.21), 5항.
- 1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13항.
- 13) 같은 책, 14항.
- 1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1984.2.11), 16항.
- 15) 참조: 200주년신약성서번역위원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2001, 181면, 각주 40번.
- 16) 참조: 같은 책, 201면, 각주 22번.
- 17)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프리카 교회』(1995.9.14), 68항.
- 18) 참조: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466면, 각주 15번.
- 1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50항.
- 2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14항.
- 21) 참조: 같은 책, 15항.
- 2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 28항.
- 23)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8항.
- 2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1965.12.7), 3항.

- 25)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 17항.
- 26)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47항.
- 27)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1988.12.30), 53항.
- 28)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봉헌 생활』(1996.3.25), 83항.



## 제3부

### 가톨릭 의료 활동의 기본 원칙

제1장 · 인간의 존엄성

제2장 · 인간 생명의 존중

제3장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



## 의료의 목적은 생명에 대한 봉사이다

23.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병자들에게 대한 봉사를 자기 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의료를 인간 구속(救贖)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봉사적 도구로 발전시켜 왔다.<sup>1)</sup> 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 위기에 처한 인간의 생명을 돌보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다. “건강을 보호하고, 회복하며, 증진시키는 일은 전인적으로 생명에 봉사하는 일”<sup>2)</sup>이며, 인간의 존엄과 인간 생명의 신비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고귀한 소명이다. 생명을 섬기는 일은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요, “병든 몸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는 일이다.”<sup>3)</sup>

교회의 윤리적 전통은 가톨릭 의료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생명에 대한 봉사에 있음을 언제나 끊임없이 밝혀 왔으며, 이를 거스르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해 왔다. 모든 과학과 기술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고, 그 어떤 새로운 의학적 발견이나 놀라운 기술도 그것이 인간에게 봉사할 때에 비로소 참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sup>4)</sup>

## 제1장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24.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창세 1,26~27 참조)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 하나하나의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다.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 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다. 은총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와 계약을 맺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sup>5)</sup> 오직 인간만이 자신을 지어낸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sup>6)</sup> 오직 인간만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sup>7)</sup>이다. 보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인간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이다.”<sup>8)</sup>



##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이다

**25.**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지어내신 인간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단일체, 곧 하나의 인격체로서 창조되었음을 잘 설명해 준다.<sup>9)</sup>

인간이 자기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이 단일성 안에서이며, 따라서 인간이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한, 그 무엇도 인간에게서 감히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거나 어느 하나를 임의로 배척할 수 없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두 요소 가운데 어느 한 요소의 우월성이나 영원성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 존재, 곧 영혼과 육체의 단일체인 인격 자체로서 존엄하기 때문이다.<sup>10)</sup> 참된 인간 존중은 인간을 이처럼 “통일된 전체”<sup>11)</sup>로서 바라보고 접근할 때 비로소 말 그대로 ‘전인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그 모습 그대로 영혼과 육체를 항상 그리고 동시에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sup>12)</sup>

## 인간은 세상 만물의 중심이요 목적이다

**26.** 인간 존엄성은 인간 각자가 지닌 “불멸의 특성”<sup>13)</sup>이며,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선”<sup>14)</sup>이다.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하느님에게서 부여받은 존엄성을 저마다 자기 인격 안에 새겨 두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되풀이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지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함과 고귀함을 지닌 존재로 이해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한 인간의 가치는 지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하며, 세상의 어떤 가치도 인격 그 자체인 인간의 가치를 능가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 존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한낱 이용의 대상이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한 행위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정의를 훼손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다.<sup>15)</sup> 거꾸로, 인간은 세상 만물의 “중심과 정점”<sup>16)</sup>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선’이다.<sup>17)</sup> 사회 정의는 오직 인간의 이 탁월한 존엄성을 존중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라는 복음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사회의 궁극 목적이며, 사회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sup>18)</sup>



##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누린다

27.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창세 1,26~27 참조) 창조된 인간은 모두 같은 본성과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sup>19)</sup> 여기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 등에서 기인하는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게 누리는 존엄성은 “모든 인간 평등성의 토대”<sup>20)</sup>이자, “모든 인권의 바탕”<sup>21)</sup>이 된다. 인간 존중은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하는 신성한 권리들, 곧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며, 이 권리들은 천부의 보편적 불가침 권리로서 사회보다 앞서 있기에 모든 인류 사회가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권리이다.<sup>22)</sup>

실제로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이 존중받으려면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수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sup>23)</sup> 이 기본적인 권리들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그 무엇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 본성 자체에 새겨진 이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sup>24)</sup> 모든 인간은 의식주 등에서 생존과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병고와 노동력 결여, 노환, 실업 등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존 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지닌 인간 존엄성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의료 또한 그것이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릴 기본권에 속한다. 교회는 일찍부터 의료를 인간 존엄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본적인 권리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주장해 왔다.<sup>25)</sup> 따라서 가톨릭 의료 활동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존엄성의 증진과 수호를 위하여 노력할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 제2장 · 인간 생명의 존중

###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28. 인간 생명의 근원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생명의 숨결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숨결 덕분에 인간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다(창세 2,7 참조). 생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선물이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오로지 하느님에게 속한다. 곧 인간 생명의 유일한 주인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sup>26)</sup> 인간 생명은 그것이 하느님께 속하고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서 그 자체로 선하고 신성하며 도구화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또한 그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양도 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성격을 갖는다.<sup>27)</sup>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수호자요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sup>28)</sup>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생명을 그의 책임감 있는 보살핌에 맡기셨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써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돌보도록 맡기셨다.”<sup>29)</sup>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임무

이며, 특히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다른 누구보다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다. 교회는 인간 생명이 어떠한 조건과 발전 단계에 놓여 있든 간에, 설령 그것이 지극히 나약하고 고통 받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느님의 큰 선물로서 절대적인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가르친다.<sup>30)</sup> “생명은 선물인 동시에 책임이다.”<sup>31)</sup>

### 생명은 그 시작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

29. 인간 생명의 시작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확고부동하다. 곧 인간의 생명은 임신(受精)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며, 인간은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의 절대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이다.<sup>32)</sup>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생명은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생명입니다. 그 존재가 기왕에 인간이 아니라면 결코 인간으로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인간이 될 자는 이미 인간입니다.”<sup>33)</sup>



인간 생식의 결실인 태내의 생명은 그가 수정란이든, 배아이든, 태아이든, 다시 말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이미 완전한 인간이며,<sup>34)</sup>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sup>35)</sup> “무고한 인간 생명의 절대적 불가침성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도덕적 진리이며,”<sup>36)</sup> 이를 거슬러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들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든 윤리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sup>37)</sup>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하느님의 계명은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유효하다.<sup>38)</sup>

### 모든 인간은 인간 존엄성에 합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30.** 생명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sup>39)</sup>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근본 권리이자 다른 모든 권리의 근원이며,<sup>40)</sup> 인간은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 과정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하든 불구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상황에서 생명권의 주체”<sup>41)</sup>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라기보다는 하느님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그것이 누구의 생명이든, 자기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sup>42)</sup>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기 때문

이다(지혜 16,13 참조).

“그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결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배아이든, 태아이든, 유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들은 명백하게든 암시적으로든 이러한 행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도 합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거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을 침해하는 문제이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생명을 거스르는 범죄요 인간성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sup>43)</sup>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권이란 생명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합당하게 살 권리”<sup>44)</sup>를 뜻한다.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쓸모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다. 초기 단계의 생명뿐 아니라, 질병과 장애 때문에 고통 받는 생명, 임종에 가까운 생명이라 하더라도, 생명은 그 자체로 지극히 소중한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므로 언제나 그에 합당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 능력이 없는 이들의 생명일수록 더 큰 수용과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sup>45)</sup> 특





히 질병과 노년으로 쇠약해져 죽음을 앞둔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적절한 의료적 지원과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보호받는 가운데 “인간답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권리가 있다.<sup>46)</sup> 죽음도 엄연한 인간 생명의 일부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이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sup>47)</sup>

### 제3장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은 교회의 전통이다

**31.**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도, 인간 존엄성의 향상을 추구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항상 “더욱 무력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한층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한다.”<sup>48)</sup> 그들은 흔히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버림받은 약자들이며,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기 쉬운 처지에 놓여 있어 더욱 큰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sup>49)</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으셨고,<sup>50)</sup> 심지어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따라서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교회의 우선적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수많은 자선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 왔으며,<sup>51)</sup>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자선 활동을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자신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주장한다.”<sup>52)</sup>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한다

**32.**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교회는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한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선택하고 존중하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겪고 있는 모욕, 배척, 무기력, 가난의 처지가 어떠하든,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물질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온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sup>53)</sup>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단지 물질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교회는 특히,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나라들에서조차 인간 존엄성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한다.<sup>54)</sup> 삶의 의미를 상실한 데에서 오는 절망감, 마약 중독, 늙거나 앓을 때 버림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소외감, 사회적 차별 등은 오늘날 물질의 풍요와 무관하게 날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명백히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들이다. 교회는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이들 역시 물질적 궁핍에 짓눌려 사는 이들처럼 교회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친다.<sup>55)</sup> 가톨릭 의료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교회의 이 같은 노력에 그 뿌리를 둔다.<sup>56)</sup>

註) —————

- 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인간의 고통」, 1항.
- 2)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3항.
- 3) 같은 책, 4항.
- 4)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35항.
-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항.
-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2항.
- 7) 같은 책, 24항.
-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356항.
- 9) 참조: 같은 책, 362항.
- 1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1993.8.6), 48~50항.
- 1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1981.11.22), 11항.
- 12)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4항.
- 1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37항.
- 14) 같은 책.
- 15) 참조: 같은 책.
-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2항.
- 17)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37항.
- 18)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9항.
- 19)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29항.
- 2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37항.
- 21)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1999.1.22), 57항.
- 22)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0항.
- 23)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38항.
- 2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 19항.
- 25) 참조: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1963.4.11), 11항.



- 26)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39항.
- 27) 참조: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43항.
- 28)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0항.
- 2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76항.
- 3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30항.
- 31)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1974.11.18), 5항.
- 32)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1987.2.22), I, 1항.
- 33)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 12~13항.
- 34) 참조: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36항.
- 35) 참조: 교황청, 「가정 권리 헌장」(1983.10.22), 제4조.
- 36)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57항.
- 37) 참조: 같은 책, 14항.
- 38) 참조: 같은 책, 61항.
- 39)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 서론, 1항.
- 4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101항.
- 41)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38항.
- 42) 참조: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인간개발위원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1981), II, 2.1.
- 43)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1980.5.5), II.
- 44)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46항.
- 45)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12항.
- 46) 참조: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 II, 2.2.
- 47) 참조: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119항.
- 48)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봉헌 생활」, 82항. 참조: 「아시아 교회」, 34항.
- 49) 참조: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1891.5.15), 12항.
- 50)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 58항.
- 51)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자유와 자각」(1986.3.22), 68항.
- 5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1965.11.8), 8항.
- 53)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자유와 자각」, 68항.
- 54)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1991.5.1), 57항.
- 55)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2001.1.6), 50항.
- 56)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봉헌 생활」, 82항.



## 제4부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의 적용과 실천

제1장 · 진 료

제2장 · 교 육

제3장 · 연 구

제4장 · 원 목

제5장 · 경 영



##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과 핵심 가치

**33.**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의료 공동체이다. 그 정체성과 사명의 핵심은, 기관의 영성과 핵심 가치들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신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모든 의료 행위는 교회의 윤리적 전통을 준수하며, 그 조직과 운영 또한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모든 부서와 구성원들은 기관의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과 사명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저마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통하여 기관의 영성과 핵심 가치들을 실천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제1장 · 진료

### 병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

**34.**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지향하는 의료의 핵심은 전인 치유이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 또한 몸에 영향을 주듯, 병자가 겪는 고통은 전인적이다. 질병은 단지 병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병자들을 진료하는 일은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뿐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인격, 곧 병고에 지친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함께 만나는 일이며,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한 인간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살피고 그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다.

가) 우리는 병자를 단순히 우리의 의학 지식을 적용할 익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이웃'으로 여긴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손하고 친절함 언행으로 최대의 관심과 존중을 표시하는 것은 병자를 맞는 우리의 기본 자세이며, 이웃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나) 우리는 병자들도 다른 모든 이와 동등하게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힘쓴다. 이것은 특히 병자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욱 굳건히 수호되고 신장된다.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등은 그 대표적인 권리들이다.

다) 우리는 병자를 돌보는 일이 단지 육체적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병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까지 치료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기관의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모든 영역을 고려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예컨대, 원목팀과 사회사업팀은 의학적 도움 외에 병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라) 우리는 병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리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학윤리지침서』<sup>1)</sup>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을 살펴보고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적절하게 대처한다. 그밖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가톨릭 윤리 원칙을 준수한다.

## 출생 전 생명의 존중

**35.**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간 생명의 기원과 시작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재천명한다. 생명은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며, 일치와 출산을 지향하는 부부 행위의 충만한 결실이다. 하느님의 창조 활동이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었듯, 인간 생명 또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전달되고 사랑을 주고받음에서 의미를 찾는다. 어느 누구도 생명이 전달되는 이 신성한 과정을 뜻대로 조종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과정 속에서 결실을 맺은 생명을 훼손하거나 빼앗아서도 안 된다. 임신(受精)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은 존엄한 하느님의 모상이다.

가) 우리는 인간 생명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출산 조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 출산 조절을 제외한 그 어떤 피임 방법도 제공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부부의 일치를 인위적으로 출산과 분리하는 행위는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부부 행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인공 피임 시술이나 낙태약으로도 분류되는 응급 피임약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나) 우리는 또한 부부의 일치를 도외시한 채 오직 출산만을 목적으로 부부 행위를 대신하는 인공 출산 기술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부 행



위는 그 본성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행위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대신하려는 시도들은 그 자체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아기는 사랑의 '선물'이지 실험실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우리는 임신(受精)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불가침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형태의 인공 유산(落胎)도 처방하거나 시술하지 않는다. 생존 가능한 태아를 직접 고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생명에 대한 봉사를 의료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가톨릭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인공 유산(落胎)을 하려는 의도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 진단을 요구할 경우 그에 관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정중히 거부한다. 산전 태아 진단은 오로지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태어나 임신부의 생명과 육체의 완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만, 부모 또는 임신부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시술할 수 있다.

마) 우리는 출생 전 생명과 관련된 모든 의료 행위에서 구체적인 윤리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가톨릭 윤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예를 들면, 임신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임신부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태아 진단의 의학적 필요성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 임종자의 존엄성 보호

36.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임종을 앞둔 병자들이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존엄성을 온전하게 갖춘 상태에서 의미 있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존중과 사랑으로 보살핌 책임과 의무가 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하듯,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은 변함없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하며 그가 누리는 생명 또한 언제나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로서 가장 먼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어떤 고통과 질병과 노쇠도 인간의 그 존엄성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

가) 우리는 죽음도 엄연한 인간 생명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질병과 노년으로 쇠약해진 병자들이 사랑의 보살핌 속에 인간답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기관의 호스피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임종을 앞둔 병자와 가족들에게 그 활동을 널리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 우리는 죽음을 수용하는 일이 생명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질병과 노년으로 죽음을 앞둔 이들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것은 또한 임종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다. 단, 진실을 알리는 일이 반드시 의료진의 몫은 아니며, 병자와 가까운 사람이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임종을 앞둔 병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된 상태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어떤 상황에서도 병자의 죽음을 직접 의도하는 진통제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임종자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진통제 사용 또한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라)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상태의 병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수단으로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과도한 생명 유지 기술의 사용은 종종 편안한 임종을 방해함으로써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단, 병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치료 수단(영양 공급이나 수혈, 주사 등)은 중단할 수 없다.

마) 우리는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간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느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권고하거나 시술하지 않는다. 안락사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살인 행위를 요

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바) 우리는 죽음을 판정할 때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한다. 심폐사와 뇌사 모두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사망자가 장기 기증자일 때, 뇌사 판정 자체가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망 시간 확인에 엄정을 기한다. 따라서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사는 장기 기증자의 뇌사 판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사)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 시기와 관련된 모든 의료 행위에서 윤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품위 있는 죽음, 연명 치료 중단, 안락사, 장기 이식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모두 병자의 생명권과 깊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들이므로 윤리위원회는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2장 · 교 육

###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37.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톨릭 정신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교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가톨릭의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전문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모든 차원에서 가톨릭의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와 사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에 입각하여,<sup>2)</sup> 대학의 조직과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가톨릭의 정체성과 사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항상 요구된다.

가) 우리는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성 실현이 '대학'과 '가톨릭'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실현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다. 최고 수준의 학문 연구와 가르침을 성취하는 일은 모든 대학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이고, 대학 공동체를 모든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고무하는 일은 오직 가톨릭 대학교만이 추구할 수 있는 고유

의 목표이다.

나) 우리는 가톨릭 대학교의 모든 학문 활동이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서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데에 힘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신앙과 윤리 문제에서 교회가 행사하는 교도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기술에 대한 윤리의 우위성, 사물에 대한 인격의 수위성,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은 교회가 제시하는 학문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다) 우리는 가톨릭 대학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리스도교 인간관에 적합한 종교적 윤리적 가치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현대 의학의 놀라운 발전이 인간 생명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하는 윤리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라) 우리는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과 성공이 근본적으로 교수진의 역량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교수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의 증거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특히 가톨릭 신자 교수들은 자신의 탐구와 교수 활동에서 누구보다 가톨릭 교리와 윤리에 충실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모든 교수들 또한 그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우리는 가톨릭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 교육을 위하여 학생



들에게 단지 대학의 공식적인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전인적 인간 양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힘쓴다. 학생들의 학문적 지적 발전을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원리와 통합시켜 신앙을 삶에 융합시키도록 하는 것은 가톨릭 대학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

### 가톨릭 의료인 양성

**38.**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교회가 제시하는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일관된 준거로 삼아 성숙하고 역량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에 교육의 목적을 둔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권리를 수호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인은 가장 직접적으로 삶의 위기에 처한 병자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 생명의 수호자와 봉사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향상하는 것에 더하여 인간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끊임없이 촉진하고 증진하는 일은 바람직한 의료인상 구현을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수행하여야 할 교육의 핵심 과제이다.

가) 우리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의 수호자요 봉사자로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 능력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적절한 직무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기관의 일차적인 의무이며, 모든 구성원들 또한 이를 성실하게 수용할 의무가 있다.

나) 우리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의 수호자요 봉사자로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충만하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생명 존중 사상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또 가르친다. 기술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 그리고 기관의 사명과 연계된 가치들을 균형 있게 교육하는 일은 전체 교육 활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통합적인 임무이다.

다) 우리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의 수호자요 봉사자로서 가톨릭의 윤리 원칙들을 그들의 직업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가톨릭 윤리 원칙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윤리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신앙의 관점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가치들을 설명하고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라) 우리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의 수호자요 봉사자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뿐 아니라 형제적 공동생활과 협력과 대화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의 인성교육에도 특별한 관



심을 기울인다. 성숙한 인격 함양은 공동체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진정한 자기 계발의 바탕이므로, 인성교육은 기관의 지원과 관심 아래 구성원 각자의 노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장 · 연구

### 창의적 연구와 전문직 윤리

39.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가톨릭 의료 활동의 일부로서 가톨릭 윤리의 원칙을 따라 인간 생명의 신비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인간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자의 진실성과 창의성, 학문의 과학성을 기반으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가능성은 윤리적 적법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사전에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연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연구의 전(全) 과정에서 연구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부적절한 연구 행위들 역시 용인될 수 없다.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의학윤리 지침서』와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지침」,<sup>3)</sup> 「연구 진실성 위원회 규정」<sup>4)</sup>을 따른다.

가) 우리는 모든 연구의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지향하되,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로서 가톨릭



릭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 존중의 가치와 연구 윤리를 엄격히 준수한다.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언제나 그에 합당한 자율적인 윤리 규범을 요청하며, 올바른 연구자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의 목표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연구자로서 자신의 전문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힘쓴다. 또한 자신의 전문직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자신의 직업과 상황에 적합한 연구 윤리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다) 우리는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연구의 전 과정, 곧 연구의 계획, 연구의 수행 및 집필,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결과의 심사 및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연구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논문의 중복게재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40.**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윤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사물을 다루는 여타 과학들과 달리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학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 존엄성은 임신[受精] 순간부터 생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동등하게 인정되며, 누구나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연구 대상인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연구의 정당성은 상실된다.

가) 우리는 임상 시험 등 인간을 피험자로 선택하는 모든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동물 실험 결과나 그에 준하는 과학적 평가를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안전성과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연구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시행하고자 계획해서도 안 된다.

나) 우리는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능한 위험 요소들과 이익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로 연구의 참여에 동의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사전 동의’를 구한다. 이 과정은 편의에 따라 간과되거나 생략될 수 없다.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우리는 연구에 참여하던 피험자가 연구 도중 본인의 자유의사로 연구 참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직접적으로 거부할 때 즉시 피험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피험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연구의 목적, 연구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 등 그 어느 것도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라) 우리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험자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피험자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어떠한 경우여라도 피험자의 사적인 기밀을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 자료 관리 등에 대한 보안을 소홀히 하여 피험자의 기밀이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우리는 임상 시험 등 인간을 피험자로 선택하는 모든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연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하고 연구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피험자가 단순한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에서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함이다.

바) 우리는 인간 배아가 엄연한 인간 생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떠한 형태의 인간 배아 연구도 하지 않는다. 인간 생명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설사 치료 목적의 연구라 할지라도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타인의 건강을 위한 도구로 희생시키는 것은 명백히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41.**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오로지 인간의 편익을 위하여 그들을 남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동물이 인간을 위하여 실험 대상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그들 또한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실험의 지양, 고통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배려,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 환경의 제공 등은 실험동물들을 단순한 실험도구가 아닌 어엿한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자세이다.

가) 우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고자 할



때 먼저 그 실험이 연구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합당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한다. 결과가 확실하거나 이미 진행되었던 실험은 가급적 반복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에 연구 주제 및 유사 연구 결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실험을 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나)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결정된 동물 실험이라 할 지라도 그 과정에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대체 실험을 찾아 내 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동물 실험 연구자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다) 우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연구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물 실험 계획서를 기관 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 승인을 받는다. 동물 실험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가 반드시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 제4장 · 원 목

### 병자 중심의 사목: 본질적이고 고유한 임무

42.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초세기부터 이어져온 교회 의료의 전통과 복음 정신에 따라 신앙 안에서 병자를 보살피는 병원 사목[院牧]의 가치를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삼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병원 사목은 병자를 위한 전인적인 보살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회 의료기관이 고유한 신앙의 정체성 안에서 병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뿐 아니라 병자들에게 필요한 사목적 도움과 동반, 인간적이며 영적인 관심까지도 함께 포함된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보다 신앙의 힘으로 병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치유는 사랑의 열매이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증거하는 데에 있다.<sup>5)</sup>

가) 우리는 병자들에 대한 완전한 인간적 돌봄과 치료를 위하여 병자들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살피고, 특히 그들의 종교적·영적 요구를 채워 줄 사목 활동을 제공하는 일에 상호 협력한다. 병자들을 사목적



차원에서 방문하고 보살피는 일은 병원 사목에 종사하는 원목자들의 고유한 업무이나, 모든 교직원들도 교회 의료기관의 이러한 사목 활동에 함께 책임을 지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

나) 우리는 가톨릭 신자인 병자들뿐 아니라 타종교 신자인 병자들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에 따라 적절한 사목적 봉사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목 활동, 예컨대 병자 방문과 상담, 기도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단, 병자 자신이 종교적인 이유로 가톨릭 원목자의 사목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우리는 병자들 가운데에서도 중병을 앓는 이들, 임종을 앞둔 이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동반은 무엇보다 병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숙고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질병을 인간적이며 영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임종자의 경우에는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지막 길을 동반하고 돕는 일까지 포함한다.

라) 우리는 질병이 병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에게도 적절한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중한 병자를 둔 가족일수록, 특히 병자가 의식이 없거나 임종을 앞둔 상황일수록 원목자의 위로와 동반은 필수적이다. 또한 복잡한 윤리 문제에 대해 성실히

자문에 응하는 것도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목적 배려이다.

마) 우리는 병원 사목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병자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단, 병자의 치유 과정을 돕거나 다른 사목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병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 교직원을 위한 사목

**43.**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병원 사목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협력자로서 교직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맡은 바 직무를 통해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교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는 그것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간 생명의 가치 수호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관의 병원 사목 및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 사목의 또 다른 과제는 병자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개인적, 직업적, 종교적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하며, 필요한 때에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표지가 되도록 이끄는 일이다.



가) 우리는 모든 교직원이 기관의 교회적 정체성과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자기 소명을 끊임없이 재발견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원목자로서 맡은 바 교육적 소임을 다한다. 특히 가톨릭 신앙에 입각하여 기관의 고유한 사명과 가치, 윤리 원칙 등을 교육하는 일은 교직원들을 위한 사목적 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나) 우리는 모든 교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나 업무상의 문제로 겪을 수 있는 고충과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때에 그들의 대화 상대자가 된다. 적절한 상담과 조언은 교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교직원 개개인의 인격적 성숙, 도덕적 양심의 육성, 의료의 인간화 및 병자의 전인 치유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인 교직원들의 신앙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타종교 신자인 교직원들도 가톨릭 신자인 교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그들의 신앙 생활을 영위하며 활기찬 종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종파를 초월하여 지원하고 장려한다.

라)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수고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기관의 의료 사업에 이타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그들의 헌신이 개인적인 성취에만 그치지 않고 기관의 사명과 가치에도 부합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한 사목적 과제이다.





## 제5장 · 경 영

### 의료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

44.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명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서 기관의 영성과 핵심 가치 추구를 경영의 근본 목적으로 삼는다. 의료의 본질적인 목표는 영리 추구가 아니라 병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존중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경영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의료 자원을 다양한 필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고 운용하는 지혜이다. 필요하다면 한정된 의료 자원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비가톨릭 기관과도 적절한 상호 협력의 원칙 아래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기관의 모든 경제 활동, 조직과 자원 관리는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제시하는 가르침<sup>6)</sup>을 따른다.

가) 우리는 투명한 조직 운영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고 정직한 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쓴다.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투명한 거래 절차, 투명한 재무 관리 등은 책임 있는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자 공정성의 토대이며, 기관의 윤리 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조건들이다.

나) 우리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부서, 부서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쓴다. 적정한 권한의 위임은 이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책임 있는 관리자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끌 책임이 있다.

다) 우리는 윤리 원칙을 존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하여 모든 자원을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본래의 그 용도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쓴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자원을 제공하거나 경제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비가톨릭 기관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가톨릭 윤리 원칙은 언제나 확고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하여 상호 존중과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 정착에 힘쓴다. 기관의 가장 고귀한 자산은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인간 존엄을 구체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노동 조건의 제공에 기관은 언제나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공정한 인적 자원 정책

45.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간이 모든 경제·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소명을 존중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게 인적 자원을 관리할 원칙과 기준을 항상 마련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채용 기회,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근무 환경, 노동의 대가로서의 공정한 보상과 혜택, 단체 조직과 교섭의 권리 인정 등이 포함된다.

가) 우리는 인종과 성(性),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적·인간적 자질뿐 아니라 기관의 사명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두루 살펴 적임자를 선발한다. 인사 채용에 관한 규정들은 언제나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나) 우리는 모든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을 추구한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통하여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교직원들의 노후, 질병, 출산, 직업 관련 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사회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 기준을 마련한다.

다) 우리는 임금이 노동 관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교직원에게 노동의 정당한 결실로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노동의 보수는 교직원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교섭 기구로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순수한 노동 문화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노사관계의 분쟁은 언제나 당사자들 사이의 성실한 대화에 의지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이라도 노사 간의 분쟁 때문에 병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 우리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노동 조건을 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항상 모색되어야 한다. 고용의 안정과 적절한 임금, 쾌적한 근무 환경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이다.

### 사회적 책임

46.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수호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권리를 증진하며 사회에 봉사할 책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일, 생명의 가치를 촉진하고 수호하는 일, 그릇된 관습과 정신, 법률, 구조를 바로잡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사명이다.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은 기관의 이러한 사명에 동참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드러내야 한다.

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의료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며, 지역사회 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건강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도 충분한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언제나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우리는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되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의료 절차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합법적인 행위가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가톨릭 의료는 교회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한 의료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촉진하고 개인의 양심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다) 우리는 기관의 모든 경제 활동, 조직 및 운영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부당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교직원의 신상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라) 우리는 환경 보호가 온 인류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존할 인류의 보편적 의무에 동참한다. 기관의 모든 경제 활동은 환경 보호와 관련한 국제 기준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필요나 편의에만 의거하여 자원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자원 절약, 친환경 제품의 사용 등 예방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註) \_\_\_\_\_

- 1)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의학윤리지침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
- 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1990.8.15).
- 3)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10.9.1).
- 4) 가톨릭대학교,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2007.4.12)
- 5) 참조: 안드레아스 헬러·헤르만 M. 슈텅어, 『21세기의 병원 사목』, 가톨릭임상사목 연구소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의 “부록: 병원 사목에 관한 독일 주교회의의 권고 「환자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1998.4.20)”, 99~145면.
- 6) 참조: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제4장; 제6장; 제7장; 제10장.

## 참고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1964. 11. 21., 2002년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965. 12. 7., 2002년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 1965. 11. 8., 2002년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 1965. 12. 7., 2002년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청, 「가정 권리 헌장」, 1983. 10. 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1990. 8. 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인간의 고통」, 1985. 2. 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 1891. 5. 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 1963. 4. 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1995. 3.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1990. 12.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 1993. 8.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 1991. 5.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 2001. 1.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 1984. 2. 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시아 교회」, 1999. 11.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 1999. 1. 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봉헌 생활」, 1996. 3.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아프리카 교회」, 1995. 9. 1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 12. 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가정 공동체」, 1981. 11. 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 1987. 2. 22.: 「사목」 제11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 신앙교리성,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자유 의 자각」, 1986. 3. 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1980. 5. 5.: 「사목」 제71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1974. 11. 18., 「사목」 제42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1995, 가톨릭대학교출판부.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인간개발위원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 I - II, 1981.: 「사목」 제78-79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간추린 사회교리」, 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천주교명동교회 편, 『서울교구연보』, I 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제7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가톨릭중앙의료원50년사편찬위원회 편, 『가톨릭중앙의료원 50년사』, 가톨릭출판사, 1988.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의학윤리지침서』,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 『영성연구자료집(1): CMC 영성 제정의 배경』, 2009.

200주년신약성서번역위원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2001.

레옹-뒤푸르 외, 『성서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下권, 안응렬 · 최석우 옮김, 분도출판사, 1980.

안드레아스 헬러 · 헤르만 M. 슈텅어, 『21세기의 병원 사목』, 가톨릭임상사목연구소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6.

박태봉, 「한국 천주교회와 의료 사업의 전개 과정」, 『한국 교회사 논문집』, II 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 가톨릭중앙의료원 윤리현장

2012년 4월 13일 교회 인가

2012년 5월 3일 초판 1쇄 펴냄

2015년 12월 25일 개정 초판 1쇄 펴냄

펴 낸 곳 가톨릭중앙의료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06591)

편집·인쇄 가톨릭출판사(02-1544-1886)

비매품

ISBN 978-89-97158-06-5 03230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